지역 메아리

고창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

고창군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대신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특정품목(무,배추,고추,대파,인삼)을 제외한 타작물을 최소 1,000㎡이상 재배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 할 경우 작목별로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18년 고창군 논 타작물 재배 목표면적은 836ha로 총28억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작목별 지원단가는 1ha당 조사료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신청서 1부와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해리면 송산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박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해리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도 733호선 '송산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군에 따르면 국·도비 25억원을 투입하여 해리면 하련리~지로사거리까지 위험구간 2.4km에 대해 2차로 선형개량 공사를 추진한다.

송산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당초 해리면 하련리~안산리까지 1.5km에 대해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지로사거리까지 잔여구간 0.9km에 대해 추가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되어 최종 사업승인 됐다.

송산지구 지방도 733호선은 도로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구간으로 이번 공사를 통해 굴곡부와 급경사 등 위험구간이 정비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로기능 향상과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련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등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경주하여 모든 군민들에게 하루빨리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기자

"지난 한해 군민들에게 감사"

김종규 부안군수 새해 "군민 체감 행정 펼칠것"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해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소통·공감·동행 행정을 통한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정의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2018년 무술년 새해 부안군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밝혔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민선 6기 4년여 동안 서비스·마인드·창조행정 등 행정의 3원칙과 오답·해답노트 등을 적용해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만큼 군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군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특히 김 군수는 "민선 6기를 시작할 때 저와 700여 공무원들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었다"며"반값등록금 실현, 예산 5000억 원 시대,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등으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마침내 성공의 임계점을 넘어 기적 같은 꿈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군수는 또 "새만금 수도 부안 위상 정립과 600만 유료 관광도시 달성, 4차 산업혁명 연계 농본도시 육성 등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람중심 복지 실현,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정원문화도시 조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민간투자 활성화 등도 추진해 복거부안 부래 만복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2018년 세계스카우트인 부안 방문의 해 운영과 세계 속의 부안 세계잼버리 과정활동 상품 개발, 군민과 함께 하는 부안 세계잼버리 붐 조성 등을 통해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부안군 나누미근농 장학재단 정기후원회원 1만 명 확보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저 출산 고령화 극복 범국민 운동 등을 추진해 갈수록 감소하는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18년 상반기 채무 제로를 실현하고 예산 6000억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에게도 군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신청 접수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이하 동학마라톤)' 신청 마감일이 임박했다.

시에 따르면 동학마라톤 참가 희망자 접수가 오는 24일 마감된다.

따라서 참가 희망자는 기간 내 정읍동학마라톤(www.jdmarathon.kr, ☎063.537-4219, 팩스 063.537-4218)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한다.

동학마라톤은 내달 25일 정읍종합경기장을 출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풀, 하프, 10km, 5km 등 4개 주 종목 10개 세부종목으로 펼쳐진다.

풀 코스의 경우 상평동 종합경기장을 출발해→상교동주민센터→신정 4거리→내장산리조트→내장사→송죽3거리→정읍천 종합경기장으로 들어오는 순환코스다.

동학마라톤은 범국민운동으로 사랑받고 있는 마라톤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혁명 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임은 물론 혁명정신 계승 의지를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최근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과 농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 등 어느 때보다 전국적으로 혁명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이번 마라톤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혁명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더욱 높이고 혁명정신 계승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골목상권 살리기 총력

사업비 7억 600만원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 투입

정읍시가 대기업 편의점 개설 증가 등 유통 환경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난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나들가게 육성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비 5억600만원에 시비 2억을 더한 총사업비 7억600만원을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에 투입한다.

시설 현대화와 사업 컨설팅, 점주역량 강화교육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나들가게의 쇼핑 환경을 대형 할인 마트나 편의점에 뒤지지 않도록 조성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1차 년도인 지난해 23개를 지원 점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한 점포 관계자는 "방문하는 고객들이 깨끗해진 매장에 만족스러워 하고 있어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와 TV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특화사업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시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년도인 올해도 나들가게 점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설 현대화와 특화 코너 지원 등을 통해 모델숍을 육성하고 시설 개선과 POS 시스템(point-of-sale system, 판매시점 정보관리) 교육 실시와 함께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우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 스스로의 변화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와 업주 모두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골목상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추진

2020년까지 유리온실 · 야생화단지 · 습지체험장 등 조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간부공무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일 군청 상황실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희귀종의 생태적 서식지로 보전가치가 높아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자연생태원은 환경부로부터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생태원, 유리온실, 야생화단지, 습지체험장 등을 오는 2020년까지 조성 할 계획이다.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 복원의 보전기능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원기능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청솔제 테마공원·고인돌공원·운곡습지를 연결하는 생태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생태도시로 조성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친지연·친환경정책을 기조로 아름답고 청정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의 이해를 돕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최고의 자연생태관광도시로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18일 시청 5층 대회의실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알리기 위한 합동 설명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가지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정읍시가 주관하는 합동 설명회는 기업들에게 주요 지원 시책을 알려 이용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기업들의 애로를 수렴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명회에는 전북도와 지방중소기업벤처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17개 중소기업지원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지역 내 150여개 기업체들이 참석할 설명회에서는 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과 보증 지원 등 기업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와 응답을 통해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별 맞춤 정보 제공을 위한 1대1 전문가를 통한 '상담코너'도 운영하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많은 기업체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따"며 "설명회를 통해 자금과 창업, 기술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도 해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